

## “ 목숨보다 귀한 것 ”

### ■ 이종윤 원로목사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사람이 사는 곳엔 반드시 종교가 있다. 그러나 생산성만으로 인간을 평가하려는 현대인들에게 종교의 자리는 점차 왜소해지고 있다.

어떤 분이 대학교 총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교회의 목사로 섬김의 자리를 옮길 때 놀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인간에게 교육도 필요하지만 종교 신앙은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교를 하나의 장신구 정도로 착각을 하고 함부로 상품화하거나 생활의 도구화하여 행복의 촉매로 여기는 거짓 종교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역사와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경직된 무거운 모습이므로 현대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가볍고 즐거운 예배를 추구해야 한다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에 집중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올림픽 경기장에서 백미터 출발선에 서 있는 국가대표 선수의 긴장감은 스트레스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환호성의 전주곡과 같은 것이다. 그 순간 긴장하지 않고 경거 망동하면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인간은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다.

인생이란 선택이다. 한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은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결과로 갈라진다. 입시생이나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선택뿐 아니라 살 곳이나 영원한 것에 대한 오늘의 선택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최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뛰어난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 누구나 이것이든 저것이든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권리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름지기 선택을 신중하게 지혜있게 그리고 긴장감을 갖고 기도하면서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길에서 들은 것을 신중한 생각이 말해 버리는 도청도설(道聽塗說)하는 자나 자기를 모르고 함부로 덤비는 자를 가리킨 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광포 잔인하고 지혜가 없는 군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장자는 우선 신중하게 자신의 품행을 바로 잡아 상대가 감화하도록 힘쓰라, 당랑(사마귀)처럼 두 발을 지켜두고 차바퀴에 덤비는 방법으로는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 했다.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지 뒤로 물러 설 줄 모르는 사마귀는 제 분수도 모르고 장공이 탄 수레의 힘은 생각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업신여기며 덤비는 미련한 놈이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외가 생겨나야 하고 그 지식의 안내와 가르침을 받아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선을 찾기를 배워야 한다. 그것을 받은 다음엔 모든 것을 하나님 덕분으로 돌리기를 배워야 마땅할 것이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분별 없이 경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조심해야 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한국장로신문 [제 1301호] 2011년 12월 17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	John 4:24 .....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Deacon Ki Chan Yoo
Hymn .....	2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Rom 4:23-5:5 ..... Preside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Presider
Anthem .....	Congregation
Sermon .....	“Rejoice in Suffering” ..... Pastor
* Hymn .....	263 (I hear the Savior Say)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resider
* Lord's Prayer Song .....	635 .....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b>부 목 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b>교육전도사</b> 김은숙 박미라 <b>선 교 사</b>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료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훈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정상찬홍성임(필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경(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이완), 필리핀, 프로산토, 수레시, 수버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박영성,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p style="text-align: center;">천국시던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b>대한예수교 장로회</b></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h1 style="font-size: 2em;">서울교회</h1>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b>SEOUL PRESBYTERIAN CHURCH</b></p> <p style="text-align: center;">원로목사      <b>이 종 윤</b>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

■ 창 15:4-6, 롬 4:9-11, 갈 2:16  
 아브라함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롬4:9-11)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1. 아브라함은 행함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많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사과의 오류를 로마서 4장에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칭의의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의 기초위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신 바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는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義)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2.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복을 얘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이, 죄를 용서 받은 이, 이신칭의를 받은 이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저주가 아닌 칭의를 받고 응답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죄를 용서 받고 죄의 용서와 용서의 한계를 기도 중심에 삼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윗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 25:7) 라고 기도합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용납도 칭의도 없습니다.

3. 칭의의 중심 사상과 의미는 무엇인가?  
 로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갈 2:16)  
 그러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신실성)입니까?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이들이 강조한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과 성령의 사역으로서의 믿음이며 강조점은 믿는 사람이 아닌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믿음은 결코 인간의 공로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믿음 뿐 아니라 믿음의 순종(롬 1:5, 16:26), 믿음에 속한 순종, 믿음이 가져오는 순종이 믿음에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맺는 말**  
 우리들은 행위로 구원 받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아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아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기뻐하는 사람, 죄 용서를 받은 사람, 이신칭의를 받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증인으로 서고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라는 말은 순종과 선행을 배제하지 않는 바울과 야고보 사이에 본질적인 모순은 없이 이신칭의, 곧 믿음과 믿음 위에 순종, 곧 선행을 포함하고 있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이종윤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최광성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오광환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인 도 자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김의창 목사

-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9:10-11...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 찬 송 Hymn .....3(2)..... 다 합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합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8(시 14)... 다 합 께
-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합 께
- 기 도 Prayer ..... 말 은 이
- 찬 송 Hymn .....35(50)... 다 합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롬 6:1-14...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합 께
- 봉헌 Offering ..... 다 합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합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 찬 양 Anthem .....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합 께
- 설 교 Sermon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종윤 목사  
(We who have died to sin)
- \* 찬 송 Hymn .....295(417)... 다 합 께
-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합 께

- 목 도 ..... 다 합 께
- 성 시 ..... 시 40:1-3 ..... 인 도 자
- 찬 송 ..... 66(20) ..... 다 합 께
- 기 도 ..... 유근중 집사
- 성 경 ..... 시 102:1-28 ..... 인 도 자
- 세례식 ..... 이종윤 목사
- 찬 양 ..... 찬 양 대
- 설 교 ...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 설 교 자
- \* 찬 송 ..... 435(492) ..... 다 합 께
- \* 축 도 ..... 설 교 자
- \* 주기도송 ..... 다 합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 기 도 ..... 김미성1 권사
- 성 경 ..... 막 3:13-19 ..... 인 도 자
- 찬 양 ..... 찬 양 대
- 설 교 ... “이에 열 돌을 세우셨으니(2)”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 조원영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현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박준호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믿음으로 아니 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오는 줄 알므로 우리 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함이라 율 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 2:16)	지난주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수요 I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모임

- 권사회 연합 수련회 / 20일(수) 오후 2시 101호
- 가브리엘 찬양대 연습 / 23일(토) 오후 3시 101호

### 알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금일 세례식 실시 / 금년도 첫번째 세례식이 2월17일(주) 저녁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례교육부 010-7743-3223으로 문의바람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3.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동건(치과), 김관섭(영상의학)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p> <p>다음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이경진(성형외과) 입니다.</p> <p>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p> <p>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p> <p>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p> <p>※ 전화 예약 010-2376-3892</p>
---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898명	237명	204명	1,339명	141명

## 수입, 지출 내역보고(2/10)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2월 10일	헌 금	32,857,200	
	찬양운영비		70,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219,040
	통 신 비		59,400
	수도광열비		265,000
	차량유지비		664,540
	도서인쇄비		525,000
	사무용품비		102,000
	소모품비		500,000
	수선유지비		346,500
	식당운영비		1,072,880
	합 계	32,857,200	4,074,360